

Daily Auto Check

2021.1.5(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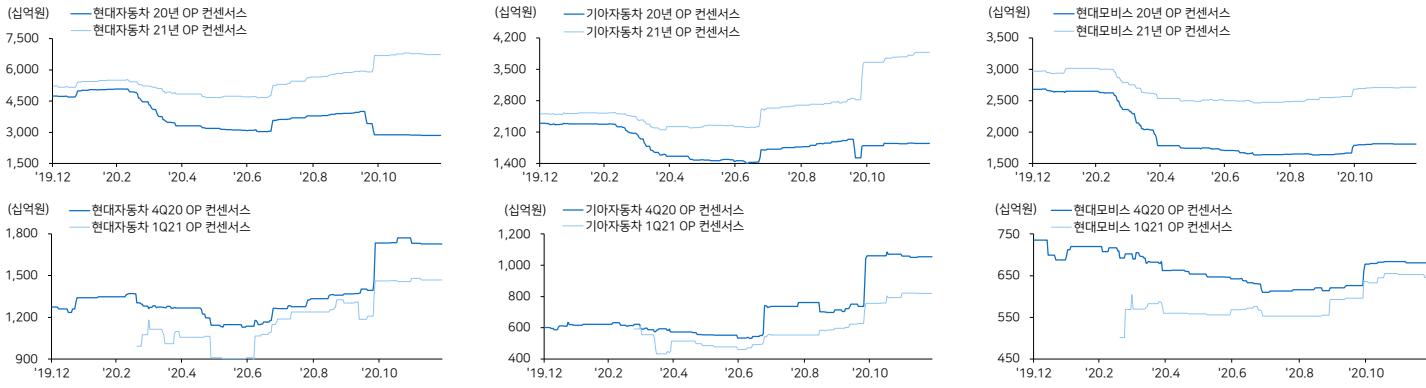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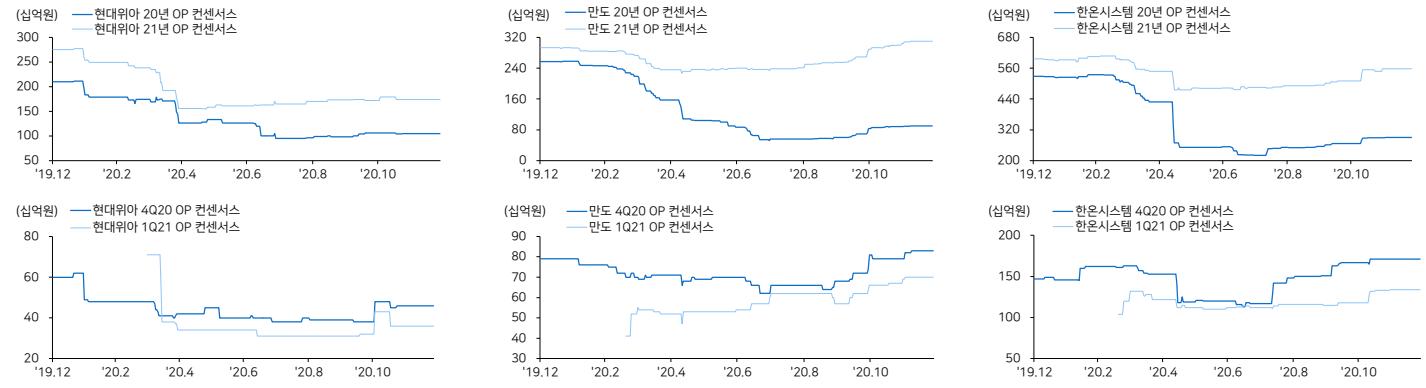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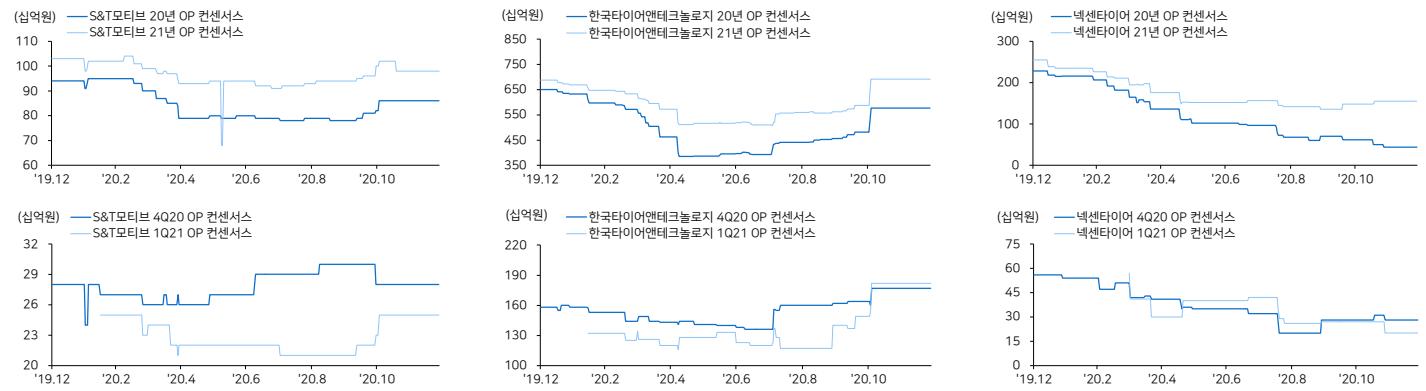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대비 조직 개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실 신설 (조선비즈)

현대차가 새로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내부 조직 정비에 나선다. 정의선 체제에서 본격화되는 미래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했던 것. 주요 업무는 자동차 외 모빌리티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4/202101040216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현대차,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세운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기지를 구축.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기술 수출에 따른 영향을 심사했고,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판단해 수출을 승인.
<https://bit.ly/38dR1FN>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 난 현대차 울산1공장에 작업중지 명령 (조선일보)

본격 조업을 하루 앞두고 시범 가동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4일 현대차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1공장 프리스 공장에 작업 중인 직원이 발동대 가동이 중단된 상태.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1/04/KDUDTU7R6RF5VCJWL7WEEZNJ6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aver-news

테슬라, 중국서 모델Y 가격 파격 인하...경쟁업체 '초강장'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Y 출시를 앞두고 먼저 예고한 것보다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현지 경쟁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음을 테슬라는 지난 1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에게 인도될 중국산 모델Y의 가격을 확정 공개.
<https://bit.ly/3s117V5>

현대·기아차 올해 판매목표 708만2000대...작년 판매량보다 11.5% 높게 (뉴스1)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판매목표를 708만2000대로 잡았다. 지난해 판매실적보다 11.5% 증가한 규모.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각각 416만대, 292만2000대로 설정했다고 4일 공시.
<https://bit.ly/2LhVLRU>

완성차 5개사, '내수로 버틴 12월'...현대차·한국GM 신방 (오피니언뉴스)

대차가 지난해 12월 내수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판매를 신장한 기록. 반면 기아차는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9% 감소. 현대·기아차 모두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해외 판매 실적은 전제적으로 감소.
<https://bit.ly/2LipWRz>

한국자동차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업계 M&A 활성화될 것' (조선비즈)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M&A가 위축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업계의 기술·산업 변화가 '현재진행형'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M&A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4/202101040056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FCA-PSA 주주들 합병안 승인...세계 4위 자동차 업체 출범 임박 (연합뉴스)

이탈리아-미국 합작 자동차업체 FCA와 프랑스 PSA 그룹 간 합병에 따른 통합 법인이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임. FCA와 PSA는 각각 화성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통과시킬. 합병법인은 양쪽 주주로부터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동적인 지지를 받음.
<https://bit.ly/38c0Dkk>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